보이지 않는 포장산업의 버팀목

필름권취용 지관 생산

연혁

1974. 10 회사설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43-2

1982. 11 공장확장이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3-6

1984. 3 조세의 날 포상 대통령 표창

1993. 9 제2공장 시화공장 건설 시작

1994. 1 PET필름 권취용 지관 기술 개발

1996. 5 시화공장 가동

2001. 5 (사)한국포장협회 가입

◀ 신민식
삼육지관공업(주) 대표이사

다종 · 다양한 산업이 혼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규모가 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의 경우, 이론적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접근하기도 쉬워 많은 기술자들이 배출, 이들이 연구에 매진, 더욱더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반면 꼭 필요한 제품을 생산함에도 이론적 체계의 미비,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 부족 등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심지어는 용어조차 불분명한 업종이 많아 일본어나 영어를 차용해 국적불명의 우리말화 해서 쓰는 업종이 많다.

지관 및 지통 산업 또한 마찬가지여서 지관(紙管, 紙罐), 지통(紙桶, 紙筒), 영어로는 Paper Can, Paper Tube, Paper Core 등의 단어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며, 각 생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체계적인 용어의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기술자와 학자들의 몫이다. 이 문제는 차제에 두고 지난 5월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한 삼육지관공업(주)(대표이사 신민식)을 방문하여 지관 및 지통을 생산하는 분들을 만나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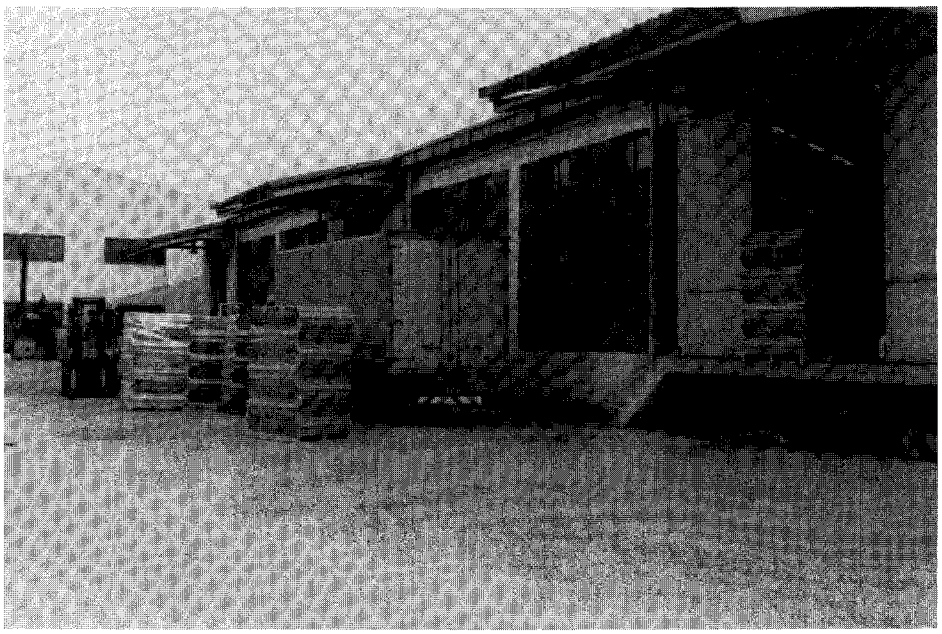
삼육지관공업(주)는 1974년 10월 설립한 이후 올해로 창사 27년여의 연혁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삼육지관공업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포장용 필름 권취용 압출 및 연마지관을 주생산품목으로 현재 포장용 필름생산업체인 대림산업(주), 율촌화학(주) 등에 공급하고 있다.

흔히들 생각해서 포장용 필름을 지관에 마는데 무슨 기술력이 필요하겠냐 생각하겠지만 OPP, CPP, PET필름과 인쇄된 필름의 종류별로 쓰이는 지관이 다를 뿐 더러 지관의 품질에 따라 필름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된다.

수출용의 경우 운송시간이 많이 걸릴 때 강도가 약할 경우 지관에 변형에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필름에도 변형이 생겨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평활도나 직진도의 불균일성에 의해 필름에 흠집이 나게 되 필름 한 롤을 모두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는데 삼육지관공업의 경우 품질력 만큼은 인정을 받고있어 연간 40억원의 안정된 매출을 보이고 있다.

삼육지관공업은 현재 포장용 필름 원단뿐만 아니라 이미 연포장업체에서 인쇄를 통해 가공된 필름을 권취하는데 쓰이는 지관도 원지산업(주), 삼아알미늄(주)에 공급, 품질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하는 콘덴서용 전선을 보호하는데 쓰이는 지관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



▲ 삼육지관공업 시화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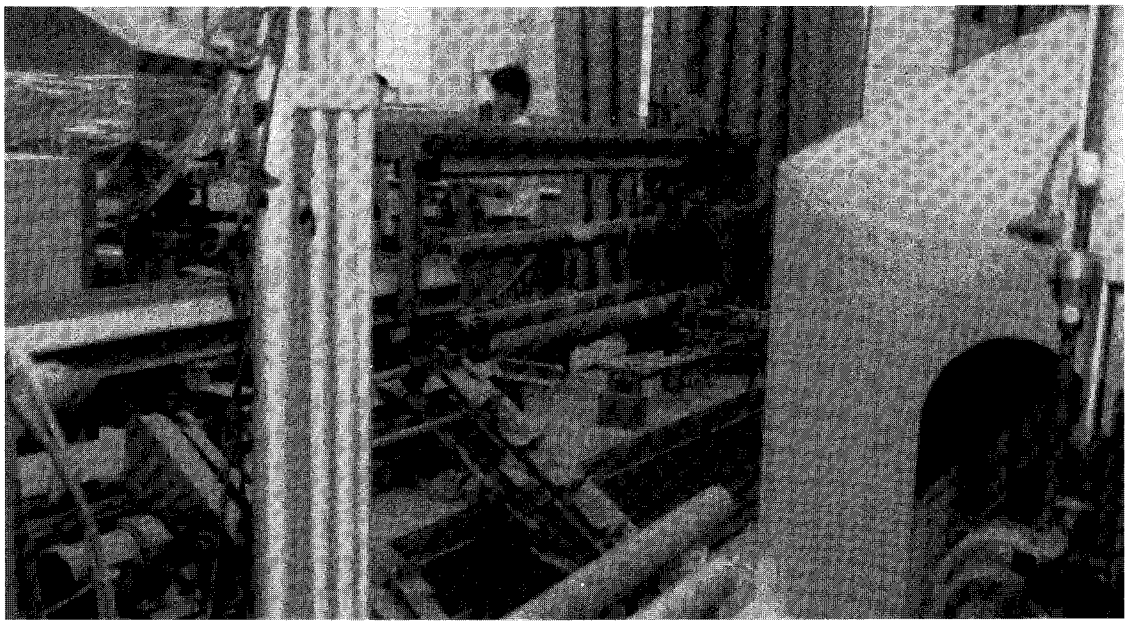
발, 생산하는 등 지관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급음료 포장용으로 쓰이는 테트라팩 원지의 권취용으로도 지관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부 건강식품이나 고급식품류의 지통도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사진 필름, 도면 등의 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지통도 다수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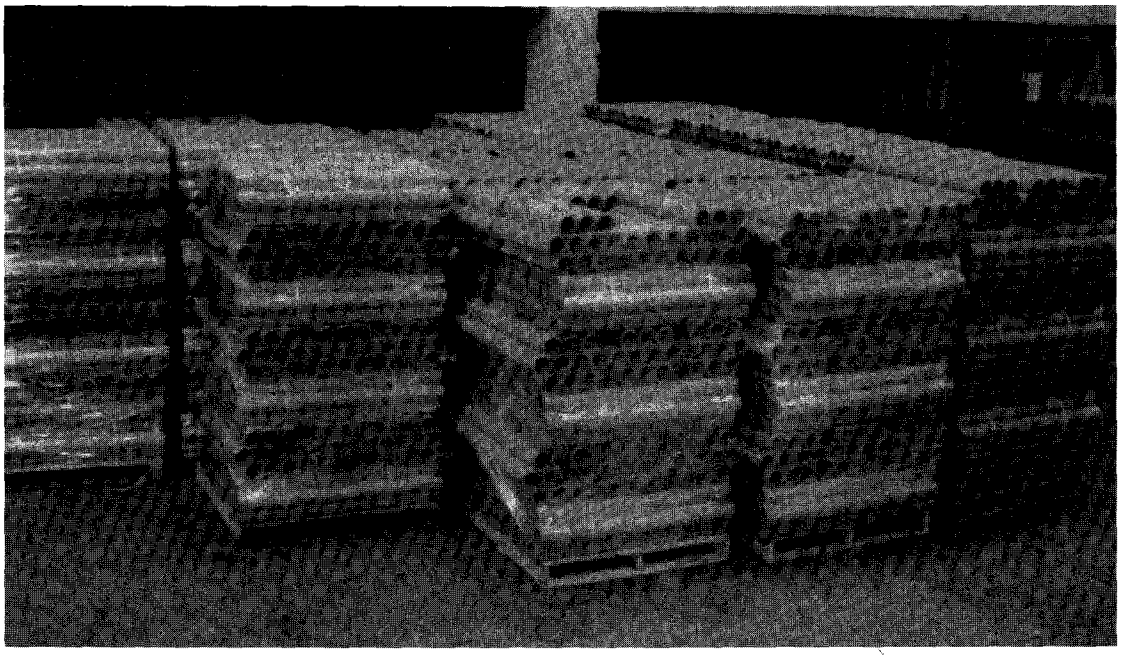
현재 다양한 종류의 지관을 생산하고 있는 삼육지관공업은 지관생산기계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약간의 기계적 변형과 개발을 통해 타원형의 지관 등 유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육지관공업 관계자들은 업종의 애로사항으로 저가의 단가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한 불편함을 꼽았다. 예를 들면 지방의 경우 삼육지관공업의 독산공장이나 시화공장에서 상당량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부피 때문에 물류비 비용을 제하고 나면 이익이 발생치 않는다며 차라리 공장근처에 지관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편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삼육지관공업의 경영진들이 나름대로 지관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원칙이 있다면 덤핑을 하는 업체와는 되도록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덤핑을 하는 업체의 경우, 당장은 이득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소위 시장의 틀이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삼육지관공업과 같은 부속품 공급업체의 불이익은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 삼육지관공업 지관생산설비



▲ 출하를 대기하고 있는 지관

또 하나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점은 자사의 지관을 사용하는 포장용 필름 제조업체나 연포장업체들이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간접적인 수출이긴 하지만 세계 곳곳에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이 도달한다는데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현재까지 지관 공업은 업종구분도 명확치 않을 뿐더러 지방분산분포형의 산업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육지관공업과 같은 필름권취용 지관을 만드는 업체와 섬유용 합성사의 권취용 지관을 만드는 기업도 상당수 있으며, 두루마리 휴지에 들어가는 지관을 만드는 업체도 여럿이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지관업계만의 모임이나 조합, 단체가 없는 실정이어서, 공동의 생산품목을 영위하는데도 정보의 교환이나 기술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다.

지난 5월 삼육지관공업은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했다. 비록 포장용필름 지관을 생산한다는 게 계기가 됐지만 포장용필름 지관을 생산하는 업체만이라도 다수 모임을 가져 포장산업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박기진 기자

삼육지관공업(주) 연락처
본사 · 서울공장 02)805-3636
시화공장 031)497-3636